

## 중요문화재

### 동물과 포도 덩굴이 있는 거울

이 청동 거울은 당나라(618~907) 때 중국에서 제작되어 1331년 고다이코 천황(1288~1339)이 가스가타이샤 신사에 기증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은 거울의 뒷면입니다. 앞면은 반사면을 만들기 위해 반질반질하게 광을 냈을 것입니다.

거울의 주요 부분은 공작, 봉황, 질주하는 말, 수호 사자 시시, 수달 같은 포유류 등 다양한 동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배경에는 다산과 번영을 상징하는 포도 덩굴 사이에 나비가 떠 있습니다. 중앙에는 웅크리고 있는 용과 끈을 부착해 손잡이로 사용하도록 만든 구멍이 있습니다. 내부 분할 고리에는 작은 원이 줄지어 있고 외부 고리에는 팔메트 문양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청동 거울은 처음 제작되고 신성한 물건으로 사용되었던 야요이 시대(기원전 900년경~기원후 300년경) 이후에 정치적, 종교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거울 중 하나가 삼종신기 중 하나로 황실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으며, 이제 신궁에 보관된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거울은 600년대에서 700년대에 걸쳐 흔히 볼 수 있었으며 전국에서 디자인이 거의 똑같은 거울 몇 개가 출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울은 고고학적 유물이 아니라 수 세기 동안 소중히 보관되어 상태가 매우 좋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